

#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1, 예레미야 34-35장, 민족

## 의 죽음 과 남은 자들의 생명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1회기, 민족의 죽음과 남은 자의 생명, 예레미야서 34-35장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까지를 살펴보며 예레미야서의 사역과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포로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6장부터 45장까지의 예레미야 사역 이야기에서 이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얻습니다. 이와 함께 예레미야의 사역을 입증하는 실제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는 그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임을 증명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섹션의 구조도 살펴보았고 여호야김 구절, 26~35장, 여호야김 이야기, 첫 번째 패널을 장식하는 26~35장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섹션 주변의 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패널인 36과 45에는 여호야김의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고 두 섹션 모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두 섹션의 프레임워크 시작 부분에 있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설교가 선포된 후 여호야김의 불순종과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여호야김, 36장,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파함.

따라서 각 패널의 시작 부분에는 사람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에서 돌이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위협하시는 재앙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 다 26.3과 36.3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올라이(ulai)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회개한다면 기꺼이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두 섹션(26~35 및 36~45)에서 보여줄 내용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닫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통치 시기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이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과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까지 계속될 때,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심판은 우리가 다가올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때. 두 패널의 끝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국가 전체에 대한 심판의 진술입니다.

각 패널의 시작 부분에는 삶과 죽음의 가능성이 제공됩니다. 최종 반응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5장에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과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에 아직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 44장에서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난민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그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각 패널이 끝날 때마다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당시 백성들에게 생명이나 죽음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과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44장의 각 패널을 닫는 마지막 장이나 34장과 35장의 첫 번째 섹션, 그리고 44장과 45장의 두 번째 섹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에 대한 제한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개인이나 단체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인생의 선물과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는 그 기회를 거부하지만, 응답할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패널의 마지막 부분에는 국가의 죽음과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주요 개인의 구원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무명의 집단이지만, 국가 전체가 받게 될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패널에는 이집트 난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도 한 개인, 즉 신자들의 구원을 얻었는데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비극은 국가 전체가 생명과 축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반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합의 배도 시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던 시절, 북 왕국에는 여전히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오바댜도 있는데,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날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두루 다니며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의인은 단 한 명도 찾지 못한다고 상상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던 국가적 배교의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패널이나 35장의 결론에서 구원과 구출을 약속받은 그룹은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좋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첫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와 그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5장 1절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의 프레임에 대한 결론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의 아들, 하바시냐의 손자 야아사나이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안을 사로잡아 그곳에서 몇 명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와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익달리아의 아들 하난의 자손의 방에 이르렀으니 방백의 방과 가깝고 성소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의 방 위에 있더라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자손 앞에 포도주와 잔이 가득한 향아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느니라 너는 집을 짓지 말지니라.

너는 씨를 뿌리지 말라. 너는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네가 우거하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치러 올 때에 우리가 이르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아람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물어볼 수 있는 더 큰 질문, 그래서 무엇입니까? 괜찮은. 레갑 족속은 유다에 사는 유목민으로서 200년 전 예후 시대에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되찾은 서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행한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를 조장하였을 때에 예후왕이 와서 그들을 정결케 하여 행한 일이라 이 배교의 이스라엘. 레갑 사람들의 조상인 요나답은 예후의 개혁을 지지하는 친구이자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부패함을

보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주님께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약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천막에서 생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나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어떤 면에서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조장한 결과로 발생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예후의 개혁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0장 15~1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은 그 특정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집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불경건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나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구체적인 언약적 약속을 그의 가족에게서 실제로 빼앗는 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서약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가족이 주님께 충성하도록 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이 200년 후인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렀을 때 단순히 한 가족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함께 결속된 사람들의 길드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금속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말은 병거를 뜻하는 말은 라갑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전차를 만든 사람들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서약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왔습니다.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부인했고, 그 결과 그들은 일종의 고립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그들을 나실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에는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원을 할 때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포도 제품도 먹지 않았으며 시체와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나실인인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한 일, 어쩌면 긴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Re chabites도 자발적인 서약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요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로 2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가족이 있고, 클랜이 있고, 아니면 함께 결속된 그룹이나 길드가 있습니다. 현대의 예를 살펴보면 그들을 미국의 아미쉬(Amish)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미쉬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가지 특정 요소로 인해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한 매우 식별 가능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압력으로 인해 그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술병과 술병을 놓아주시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묘사하고 예레미야의 개요 중 또 다른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200년 동안 서원을 충실히 지켰는데,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그 서원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26년과 36년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야, 200년 동안 이어온 가문의 풍습을 없애라.

예레미야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모스 2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 하나가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서원을 어기는 일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인을 마시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행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것은 유다 사람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다 왕과 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레갑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의 요점은 이 모든 것 안에 매우 강력한 실물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주님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지 아니한 가문의 전통을 이렇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지켰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레갑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돕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칭찬할 만하지만 아버지의 지시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전통이다.

유다가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지자에게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충실히 지킨 것에 대해 상을 주십니다. 자,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4절, 르훔의 아들 요나답이 그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순종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느니라.

삼마여,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고 내가 끈질기게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끈질기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아버지의 서원을 충실히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루셨으며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좋아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민족에게 국가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다양한 포로의 물결을 가져오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5장까지의 패널을 보면 26장의 시작 부분에 모든 나라가 심판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5장의 패널 끝에서 당신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다른 선지자들에게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법도를 지켜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라게브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씨족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할 사람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가 전체의 죽음이 있고 이 작은 집단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는 이 모든 백성,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응답하고 순종한다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의 마지막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제외될 유일한 그룹은 레갑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매우 효과적인 수사적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백성 전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히 효과적인 방법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실제로는 예루살렘 시민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이 이름 없는 지파 레갑 족속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 우선 그들을 순종의 본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사실, 즉, 예레미야는 신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이미 이것을 언급했듯이 레갑 사람들은 언약의 모든 축복, 집, 포도원, 농작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산물입니다. 사실, 그들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식량과 교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포도원과 포도주와 집과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아이러니는 이 구절이 레갑 사람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관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의 목적이 그들이 처음에 이 서원을 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 백성, 내 후손은 농사도 짓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회의 부패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이것을 계속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선지자가 그들에게 준 명령에도 불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주님께서 그들이 조상의 전통에 순종할 때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인 서원을 지키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왜 있고 유다는 왜 있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듣고 전통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 자의 예입니다.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아미쉬입니다. 그 내용은 보존될 것입니다.

이제 레갑 족속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레위 족속과 다윗의 족속에게 주신 약속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33장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역할은 비록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더라도 그 역할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특별한 언약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복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로서는 레위인의 역할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개하는 제사장이자 성전에서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5장에 이르면 레갑 사람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국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묘사는 충실한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 부분에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들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 전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정죄입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의 모본 옆에 놓인 것은 유다의 국가적 불순종입니다. 34장으로 돌아가서 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구체적인 불순종 행위를 보면 시드기야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35장에서 선포된 국가적 심판을 가져오는 34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을 끝내고 사람들이 삶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4장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유다의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때는 시드기야 시대인데, 바벨론의 침공과 군대가 이곳에서 유다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7장 3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쳐서 싸울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고하니라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만 남아 있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34장, 7장에서 유다의 세 요새 성읍 라기스와 아세가와 예루살렘만이 남아 있는 곳을 봅니다. 같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외의 자료인 라기스 서신을 읽어보면 아세가의 신호등이 꺼져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예레미야 34장 8~22절에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설정하겠습니다. 8절 34절, 7절 바로 뒤에는 세 성읍만 남아 있고, 견고한 성읍 세 개만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언약을 세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곧 각 히브리인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하여 누구든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유대인, 그의 형제.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세마입니다.

여기에는 유다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행한 보기 드문 예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그는 6년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인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15장에는 그 사람에게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노예로 풀어줄 때, 당신은 실제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에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가 오랫동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반영합니다.

이제 일부 학자들은 모든 종들에게 전반적인 사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드기야와 백성이 행한 일이 이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언약을 맺고 우리 종들을 모두 풀어주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이것이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들이 이러한 대대적인 사면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15장과의 연관성을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노예들에게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고 일반적인 사면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심판을 거두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벨론 군대가 철수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읽습니다.

상황이 예전만큼 뻑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포고령을 내리고, 언약을 맺고, 종들을 풀어주던 때처럼 그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슈브(shub)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찾았습니다.

동사 shub의 원인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풀어 놓았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교훈 중 하나에 순종했습니다. 그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마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슈브.

그들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심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그들은 돌아서야 할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최근에 회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하여 각각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일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전반에 걸쳐 문제는 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16절에서 그들은 회개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돌이켜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희가 풀어 준 남종과 여종을 각각 도로 데려갔느니라.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패널의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와 백성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잠시 지켜서 풀어주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예루살렘 성에서의 국가적 불순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노예. 그러다가 다시 상황이 편해지거나 바벨론 군대의 압박이 조금 완화되면 노예들을 다시 데려갑니다. 그 결과 국가적인 심판이 있게 된다.

그 결과, 26장에 명시된 심판이 철회될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적 심판은 이 무명 지파인 레갑 지파의 신실함과 대조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들의 계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면할 것이다. 국가심판이 있습니다. 삶을 경험하는 작은 잔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과 레갑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 그것을 봅니다.

관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3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언약의 일에 대한 그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그가 그들에게 집행하는 형벌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17절, 라이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형제와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좋아요.

그들은 석방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신다. 좋아요.

여기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단어 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히브리 종들의 평신도 곧 자유를 빼앗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유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놓아 죽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온 땅의 왕국들에게 창녀로 만들 것이다.

선지자들 전체에 걸쳐 형벌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강조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끔찍한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형벌이 범죄에 적합한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자르는 것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언약 맺기와 종종 연관되었던 의식과 의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와 목적은 동물을 도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약을 맺으면서 행한 희생과 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파트너는 동물 부분 사이를 걸을 것입니다. 이 엄숙한 예식의 의미는 곧 언약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하여 서로 말하되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난날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의식의 일부로 바친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부분을 통과하실 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의무를 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의무를 스스로 지었습니다. 우선, 그들의 조상들은 처음에 모세의 율법을 받고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세웠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앞에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둘로 나누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송아지 같게 하리니

국가 전체의 불순종으로 인해 국가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널의 끝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에 대한 국가적 심판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으므로 우리는 레갑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널의 끝부분으로 가면 매우 유사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45장으로 가보면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약속이 나옵니다. 36장에서도 다시 이 시작 부분에서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만일 백성들이 순종하고 듣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건가요? 그리고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을 보았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이며, 이 패널 전체는 더 많은 불순종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36장에서 제시하는 생명의 약속은 45장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번에도 남은 자의 규모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의 첫 번째 패널에는 작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클랜입니다. 그것은 모호한 그룹이고 예레미야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 길고 힘들게 보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패널이 끝나면 나머지는 한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룩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충실한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룩은 용기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지시한 말씀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의 순종 때문에, 그가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45장 2절). 네가 이르기를 바룩아 나에게 화가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음으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룩은 눈물을 흘리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내 말은, 둘 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내가 신음으로 지쳐 쉴 수 없구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느니라 하라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뽑아냅니다.

그것이 땅 전체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핵심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룩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큰 일을 구하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 생명을 전쟁의 상으로 주리라

그러므로 바룩아, 네가 성전에 갔을 때 왕이 너를 미워하고 네 말을 듣기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 주고 지켜 주겠다. 바룩아, 요하난과 군사 신하들이 너와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네가 이 외국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룩아, 이 모든 일이 너와 예레미야에게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용어는 예레미야 33장에서 땅의 궁극적인 회복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룩은 살아서

그런 종류의 축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 그에게 생명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 생명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주겠다. 나는 윌리엄 홀리데이(William Holliday)가 그 작은 표현을 설명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것이 늙은 군인의 농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나갔고 어떤 약탈을 받았나요? 글썄, 우리가 얻은 유일한 약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신 전부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만, 바룩은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으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생명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룩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실함과 순종의 행동은 예레미야서 44장에서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난민들의 불순종과 직접적으로 대조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이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우상 숭배 방식에 대해 직면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행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르려는 의지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전제물을 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가 26장부터 45장까지 관찰한 모든 것의 끝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패널 끝에 있는 44장과 이집트 난민들의 국가적 불순종을 34장의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대조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34장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이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서원을 어겼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서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헌신을 지속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교도 신들에게 계속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닥친 재앙은 요시야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개혁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바룩의 생애, 백성의 심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을 지켜 재앙이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라아스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은 다 칼과 기근에 멸망하여 마침내 멸절되리라 그리고 칼을 피한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살려고 애굽 땅에 내려온 남은 자의 소수와 숫자 모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중 누구의 말을 지킬지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거의 전멸될 것입니다.

그들 중 극소수만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패널의 끝 부분에는 우리가 첫 번째 패널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 인류에

대한 심판과 소수의 남은 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배의 여파로 실제로 세 곳의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43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 그룹 중 두 그룹의 심판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586년에 도시가 멸망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포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두 패널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국가 전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렘넌트가 반응하고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는 궁극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자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1회기, 민족의 죽음과 남은 자의 생명, 예레미야서 34-35장입니다.